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01. 0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영국 前 총리, 아프간 지원 외면시 새로운 '테러·반군조직' 발생 우려
 - 12.29 「브라운」 前 영국 총리는 미군 등 연합군 철수 후 극도의 빈곤에 처해있는 아프간을 외면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과 反서방 정서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테러·반군조직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
 - * 同人은 단일국 대상으로는 최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며 英 정부 지지 촉구
- 獨, 보건장관 지역사무소 재물손괴 사건 발생
 - 1.1 DPA통신은 코로나19에 맞서 독일의 방역을 이끌어온 「카를 라우터바흐」 獨 보건장관의 지역사무소가 습격을 받아 유리창이 파손됐으며 백신 접종 반대론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
 - * 同人은 이전에도 봉쇄에 불만을 가진 자들의 협박성 이메일 다수 수신

미 주

- 美, 의사당 난입 1주년 계기 폭력 발생 경고
 - 12.30 보안당국(국토안보부·FBI·의회경찰 등)은 국회의사당 난입* 1주년을 맞아 일부 세력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선동할 가능성이 있으며, 특히 '외로운 늑대'가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
 - * '21.1.6. '프라우드 보이즈', '큐어넌' 등 극우단체 주도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, 경찰 1명 등 5명 사망·수백명 부상
- 美, '21년 한 해 총기난사 687건 발생
 - 12.30 외신은 '21년 한 해 미국에서 사상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687건 발생해 전년 611건 대비 76건 증가했으며, 전체 총기 사건·사고 사상자는 2만52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
 - * △총기 보유율 급증 △느슨한 총기 보유자격 검증 △개인적 원한의 사적 해결 등을 원인으로 분석

○ 캐나다, 여객기 격추 책임 '이란'에 1,003억 배상 판결

- 1.4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은 '20.18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피격된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(사망 176명)의 희생자 유족 6명이 낸 소송에서 이란 정부의 책임을 물어 총 1억700만 캐나다달러(약 1,003억)를 배상하라고 판결
- * 여객기 피격 사망자 176명에는 캐나다 국적자 55명, 영주권자 30명이 포함

중 동

○ 이스라엘, 하마스 로켓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 단행

- 1.2 AP통신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내 하마스의 로켓 발사장과 군사기지를 공습했으며, 이는 전날 이뤄진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
- * 이스라엘군은 1.1 오전 7시경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포 2발이 날아왔다고 발표

○ 이란, 드론 암살 공격 지시한 「트럼프」前 대통령 처벌 촉구

- 1.4 「라이시」 이란 대통령은 지난해 1.3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자국 「솔레이마니」 혁명수비대 사령관 피살 사건 관련 「트럼프」前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으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
- * 美 국방부는 「솔레이마니」 암살이 트럼프 대통령의 '지시'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

아프리카

○ 아프리카 사헬國, 프랑스 철수 후 러시아와 유대 강화

- 12.29 해외언론·전문가들은 ISIS·보코하람 등 테러단체가 활동중인 아프리카 사헬지역 국가*들이 프랑스 철군** 결정 후 러시아로부터 대테러 장비·무기 등 군사원조를 받으면서 상호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- * 사하라사막과 이남지역의 경계부분으로 말리, 모리타니, 부르키나파소, 니제르, 차드 등 5개국
- ** 프랑스는 '22년까지 사헬지역 주둔군을 5,100명에서 3,000명 이하로 감축 예정

프랑스,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의 공원 흉기 테러

- '20.1.3. 프랑스 파리 남동부 외곽도시 빌쥐프市소재 오토브뤼에르 공원에서 남성 1명이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(칼)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1명 사망·2명 부상
- 용의자는 공원에서 최초 마주친 사람이 무슬림임을 알고는 지나쳤으나,
 - 이후 만난 부부와 조깅중이던 여성에게는 수 차례 “알라후 아크바르” (아랍어 ‘神은 위대하다’)를 외치며 공격을 자행하였으며,
 - 범행 직후 공원 인근 슈퍼마켓 쪽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
- 검찰은 자국 출신 용의자 「나탄」 (’97년생)은 정신질환자로 ’17년 무슬림으로 개종하였으며, 이번 사건은 사전계획 범죄로 同人 소지품에서 코란, 이슬람극단주의 서적, 유서 등을 발견했다’고 발표
 - * 프랑스 정부는 同 사건을 “테러 관련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”이라고 규정
- 한편, 「로랑 뉘네즈」 국무장관은 ‘범인을 적시에 제압하지 않았으면 더 큰 참사가 발생했을 수 있었다’며 경찰의 적절한 대응을 높이 평가

< ISIS-호라산 지부(ISIS-K) >

- (목표) 호라산 지역*에 샤리아(이슬람 율법)로 통치되는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
 - * 이란어(페르시아語)로 ‘일출 지역’의 의미로 과거 페르시아제국의 동부 지역을 구성하던 현재의 이란·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·투르크메니스탄 일대 지역을 통칭
- (테러단체 지정) UN(’19.5), 미국(’16.1), 호주(’17.11), 인도(’18.6)
- (활동수법) 도시에서는 軍警 및 정부청사·다중운집장소 대상 자폭테러, 지방에서는 도로매설 폭탄테러·매복공격 등 게릴라戰 전개
- (생성배경) ‘아프간 탈레반’·‘파키스탄 탈레반’ 조직內에서 소외된 중견 간부들(특히, 파키스탄 부족 자치지역 출신)이 이탈, ISIS에 충성 맹세 후 결성
- (주요테러) (’20.8월) 낭가하르州 교도소 습격(사망 29), 수감 조직원 270명 탈옥지원 (’21.8월) 카불 공항·인근 호텔 자폭테러(사망 182·부상 200) (’21.10월) 칸다하르州 시아파 모스크 자폭테러(사망 47·부상 70)